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회의일시 : 2016년 3월 9일(수) 09:30 ~ 15:30
2. 회의장소 : 일본 도쿄 Hotel Okura Tokyo 2F Orchard Room
3.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무역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4. 참 가 자 : 총 73명, 명단 별첨
 - o 한국측 : 안종원 체어맨(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35명
 - o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사장) 등 38명
5. 회의주제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사항의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 세션1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 세션2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구축
6. 회의 개최결과

□ 한일경제인회의 논의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로서, 한일 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6년을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협력 관계(新 한일 파트너십)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

- 관계전문가의 논의사항 등이 한일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도록 정책건의

①향후 한일 양국의 협업분야

(공동 R&D, 의료·요양보호, 바이오·제약, 방재·환경, 우주개발, 신재생에너지, 관광, 물류 등)

②한일 R&D 네트워크 구축(서비스 사이언스, 신산업 표준, 벤처 생태계)

③한일 양국 공통의 위협요소(고령화, 중국의 추격)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고령화산업의 상호 인허가 및 시장정보의 DB 상호 활용, 기술금융협력)

④한일 차세대교류 확대(고교생·대학생·인턴십, 차세대경영자교류 등)

⑤제3국 공동진출 강화(자원에너지, 인프라건설, 제조업 등)

- **지난 50년간의 한일경제연계·발전 등에 대해 회고해 보고,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협력방안 (한일간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
- **한일 경제연계·발전의 발자취**
 - 지난 50년간 한일 양국의 경제연계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자금 제공 →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 한국에서의 한일기업 합작 →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 의 4단계로 구성
 - 한일 공동사업 수는 세계 20여개국에 40건 이상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협업은 **자원조달력 강화, 리스크 세어, 마케팅 강화** 등에 있어 효과적
- 그동안 한일양국은 무역/투자/신흥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해 왔으나,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투자에서 **R&D로 협력관계의 고도화**가 필요
 - 서비스 사이언스 네트워크·신산업표준 네트워크·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 **한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정부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 추진, 동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 선도, 지재권 강화
 - 기업 : 개방형 플랫폼 구축, 생태계 구축, 동아시아 시장진출 협력
- **향후 50년을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관계(新 한일파트너십)로 가져가기 위한 차세대인재·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방안과 함께, 미래신성장산업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방안을 제시**
- 향후 한일 경제□인재□문화교류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양국 경제협회에서는
 - 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경제□인재□문화교류 중심의 3대 핵심교류를 융합
 -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교류를 추진
- 한일 양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이라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
 - 양국의 핵심 성장정책 중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
 -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 공동신산업 창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시장 선점이 필요
 - **한일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
 - ▶ 차세대 정보기술 ▶ 신개념 사용자 경험 ▶ 맞춤형 물류체계
 -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스마트 교통시스템 ▶ 맞춤형 wellness care 등

□ 주요 제언내용 정리

구 분	한국측 제언내용	일본측 제언내용
1세션	회의 논의사항들을 양국 장관·정상회의 아젠다로 선정 요망	미래성장분야에 있어서의 IOT 활용
	R&D협력 펀드조성 및 여러 R&D를 통합하는 형태의 기구·제도 구성	의료·관광·IT·환경 관련 자격증 한일간 제도, 인증 공유의 진척 상황 보고
	일본 Suica와 한국 T-money의 시스템 공유	
	한일 공통과제인 고령화 사회의 한일 공동대처	
2세션	한일 학생들에게 현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건의 (회의에 대학생 견학)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교재, 공동자격 제도 필요 (의료, 요양보호 분야)
	교류대상자정보 DB화하여 활용 방안 모색(한일간 협업 확대)	인재매칭을 위해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청취(인턴십)
전체토론	논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해야 함	한일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주력
	양국 협력이 1+1=3이상이 되는 상호보완관계 구축이 중요	한일 관계 갭 해소를 위해 노력
	내년 회의부터 양국 대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	국경을 초월한 방송통합 필요성 제언 (동아시아 방송연합)

7. 개회인사 요지

■ 안종원 한국측 চে어맨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회담이 작년 11월 마침내 실현되는 등, 이러한 화해 무드를 타고 2016년은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元年으로 양국관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임
-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번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신흥국 공동진출 및 R&D 협력 관계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의 대응, 차세대 인재·문화교류협력, 한일경제협력의 미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됨
-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이 에너지가 양국 산업 전반에 훈풍을 불어 넣기를 기대함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 양국 정상회담이 작년 11월 마침내 실현되어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함
- 세계정세를 보면 북한의 핵실험 실시, 중국 경제성장의 저속화, 에너지가격 하락 등의 불안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TPP등의 메가FTA와 한중일FTA의 진전, 아시아국가의 인프라 개발수요 증가 등, 한일 경제인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한일국교정상화 51년차, 다음 5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인 올 해를 우리는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이라 칭하고 여러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특히 경제·인재·문화의 3요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이수철 코디네이터

- 신산업무역회의와 경제인회의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첫 회의 개최 시와 비교해서 과연 한일간의 경제교류와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했는지는 의문이 됨
- 이러한 형식을 갖춘 회의석상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도 좋다고 생각함
- 한일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다카다 코디네이터

- 작년 회의에서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일수록 양국 경제인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연계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조금은 개선된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함
- 각 세션별 일본측 발표자 및 발표제목 소개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2016년은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이 되는 해로써, 오늘 회의는 향후 50년을 향해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한일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돼야 할 것임
- 뒤돌아보면, 경제면에서 지난 50년간 서로가 win-win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한일 무역이 과당경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왔음
- 금후의 한일 간 경제과제는, 합리적 경쟁은 살리면서도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평적 산업내 분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될 것임
- 한일의 탄탄한 분업구조의 형성, 이 기반위에서 동아시아내 인프라 형성을 중심으로 한 한일기업의 적극적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유효수효를 창출하는 것이야 말로 양국의 경제침체 극복은 물론 나아가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함
- 그런 의미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들의 충실화를 위한 이번 전문가회의야 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람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한일국교정상화 51년째인 올 해를 양국 협회·재단에서는 ‘한일 우호·경제 협력 원년’으로 정하였음
- 오는 3/11은 동일본대지진 5주년이 되는 날임. 당시 다음 날인 12일부터 한국에서 1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되었고,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점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저는 한국이 보여준 우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코자 함
- 세계정세는 중동의 혼란과 미래가 불투명한 중국경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상황임. 이러한 때 일수록 한일 양국은 폭 넓게 공조하고 협력하여 세계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8. 주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 제1세션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이시야마 히로츠구(石山 博嗣)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제3국으로의 전개-」

1. 한일 경제연계 발전의 발자취

- 기술·자금 제공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 한국에서의 한일기업 합작
→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요르단 화력 IPP)
- 한일공동 사업 건수는 세계 20여개국에 40건 이상 전개
(자원에너지, 인프라 설비口건설, 장기 프로젝트)
- 협업의 의미 :
 - ▶ 자원조달력 강화
 - ▶ 양국 금융기관 Finance와 보험 활용
 - ▶ 리스크 세어
 - ▶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력 강화
 - ▶ 마케팅 강화
 - ▶ 양국 기업의 상호보완에 따른 경쟁력 강화

2. 미래의 한일협업 분야

- 공동 R&D, 의료·요양보호, 바이오·제약, 방재·환경, 우주개발, 재생에너지, 관광, 물류
- ▶ 관광 : 한일 공동 관광권 형성 등
- ▶ 물류 : 동해안지역의 물류경제권, 북극해 해저자원 공동개발 및 자원 유통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동아시아경제공동체형성과 한일 R&D네트워크 구축」

1. 고도화가 필요한 한일 경제협력

- 그동안 한일양국은 무역/투자/신흥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투자에서 R&D로 협력관계의 고도화가 필요
: 글로벌경제의 뉴노멀 시대, 기존 산업 성장정체, 신흥국 추격 가시화 등

2.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

- 한일 모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네트워크를 구축
- ▶ 서비스 사이언스 네트워크 / 신산업표준 네트워크 /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3. 한일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한일 정부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 추진, 동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 선도, 지재권 강화
- 한일 기업 : 개방형 플랫폼 구축, 생태계 구축, 동아시아 시장진출 협력

□ 1세션 질의응답 내용

- 고이즈미 신이치(小泉 愼一) 도레이(주) 고문
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올 해 주제는 제4차 산업 혁명이었음. IoT,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 등을 기초로 모든 산업이 바뀌어 간다는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었음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있어 IoT를 활용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함(작년 일본은 IoT 추진 컨소시엄을 발족시켰음)
- 서정해 경북대학교 교수
경제협력이 단순히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관광분야·서비스 분야 등으로 매우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음
R&D협력부분에 있어 펀드 등을 이용해 시드머니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러 R&D를 통합하는 형태의 기구·제도의 구성이 필요함
- 윤인호 도쿄이과대학 교수
2020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일본의 Suica와 한국의 T-Money의 시스템을 공유 하였으면 함
- 이시야마 히로츠구(石山 博嗣)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Suica와 T-Money를 하나의 공통패스로 만들 생각은 해 보았으나, 현재 어느 한 쪽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므로 어렵다고 생각함
현재로서는 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시 공동개발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한국의 경우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은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에 의한 규제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끼리의 M&A시장이 형성되기 쉽지 않아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미흡함
- 다카스기 노부야(高杉 暢也)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이시야마 사장께서 발표한 의료·방재·관광 등의 협력분야는 상당히 중요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제언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요양보호, 관광 등의 자격증 제도를 한일이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기병태 히카리정보 회장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사회 문제는 신산업무역회의와 경제인회의를 통해 이미 여러 번 언급되어 온 것임

의료·요양보호사 인적교류를 한일 양국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이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5월에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할 의제들을 보다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구체화시키는 자리임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관계자께서는 신산업무역회의와 경제인회의에서 나온 양국 제안사항들의 구체화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장관·정상 회담 Agenda로 선정해 주시기를 요망함**

- 안종원 한국측 체어맨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다카스기위원께서 언급하신 유연실천이 중요한 시기임
현재 중국의 추세를 보면 5년 뒤에는 한일 양국이 양분하고 있는 전 산업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중국의 부상으로 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일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다카스기위원께서 언급하신 자격증 교류와 관련하여 관광·IT·요양보호사 등의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자격증들의 한일간 제도의 공유가 가능할지 조사하고 한일경제인회의 때 진척상황을 보고하겠음**

-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현재 관광·요양보호 분야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 정작 관련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 다음 회의부터는 최소한 논의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나 관계자의 참석이 필수임

도쿄-하네다 노선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하여 성공시켰던 4년 전 역시 한일관계는 냉각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이러한 회의석상을 통해 **필요성을 어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였었기에 가능했었음**.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민간기업의 의욕을 생성시키게 해야 함

□ 제2세션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등 3명
「제3국에서의 한일 경제협력과 고령화사회 대응,
그리고 차세대 인재·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

1. 재단 22년간의 사업 추이 (1993 ~ 2014)
 - 그동안 한일 양국 재단은 한일중소기업간 비즈니스 촉진, 상담회, 지역간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하여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Win-Win 사업으로 변혁, 한일 공동의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환
 - ▶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 ① 제3국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 자원개발, 인프라, 고령화 사회 대응 등
 - ② 기업현장인재육성 : 주한일본기업인턴연수, 차세대경영자교류
2. 한일일한경제협회의 인재, 문화교류 사업
 -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한일미래학생회의,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등
3. 향후 한일 경제인재문화교류의 확대 강화
 - ▶ 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경제인재문화교류 중심의 3대핵심교류를 융합, 2016년을 한일우호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교류 추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미래 신성장산업과 한일협력」

1. 한일 간 협력의 역사
 - 해양으로의 진출, 대륙형 경제와의 연계를 원했던 양국의 협력은 필연
 - 생산과정 상 수직적 협업에서 상호 Win-Win 교류로 확대
 - 최근 정치적 요인에 의한 한일교류 위축
2. 한일경제의 공통적 위협
 - 한일은 시차를 두고 공통된 위협에 노출(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중국의추격)
 - 경제적 회복을 위해 위축된 교류를 복원하는 새로운 돌파구 필요 :
 - ▶ 신성장동력 발굴, 추격자→경쟁자→동반자, 기술협력 향상
3. 한일협력의 가능성
 - ▶ 양국의 핵심 성장정책 중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
 - ▶ 단계별 추진이 필요 :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 공동신산업 창조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 (예: 국제표준 제시, 지적재산권 선점 등)
 - ▶ 한일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 :
 - 차세대 정보기술 · 신개념 사용자 경험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스마트 교통시스템
 - 맞춤형 물류체계 · 맞춤형 wellness care 등

□ 2세션 질의응답 내용

- 요시오카 마사유키(吉岡 正行) 월드플래닝 대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보호 및 자격증에 관한 공동 교재, 공동자격 제도가 필요함**
- 고토 야스노리(後藤 康德) 인텔리전스코리아 대표
일본측에서 발표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실무담당자였음
인재 매칭의 성공,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업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F/U 등을 통해 기업과 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인재파견 내실화에 기여함**
-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 교수
한일 양국의 경제흐름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은 Stock Economy 이고 한국은 Flow Economy임. Stock만 해서도 발전이 불가능하고 Flow만 해서도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협력해야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오늘과 같은 회의석상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신산업무역회의가 목표로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 한일 양국 체어맨
국중호 교수께서 제안하신 학생들의 회의 견학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내년 한국 개최 시부터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함
- 홍정국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고문
이 회의에 처음 참가했던 12회 회의와 지금을 비교하면 인재교류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음. 12회 회의 때에 다카다 코디네이터께서 직접 인턴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 역시 실현이 되고 있음
지금까지 양국 협회에서 실행해 온 인재교류 대상자들의 정보가 담긴 막대한 DB를 활용하여, 향후 한일협력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

- 김수창 KT Japan 팀장

최근 통신분야에서의 이슈는 탈통신과 융합이라는 키워드임

5년 전부터 KT와 NTT가 기술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 기업의 강점을 서로 융합하고 서로가 지닌 솔루션을 상호 보완하여 제3국 공동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최동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일 양국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

-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 대표

2002년부터 계속 회의에 참가해오고 있음

한일 양국의 특허협력에 대해 2002년에 들었을 때는 사업화가 가능할까 싶었으나 지금은 양국의 중소기업간 특허 라이선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토론 내용

- 제상민 현대모비스 일본지점
일본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한국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시장의 경우는 오히려 일본 완성차업체에서 해외판매가 늘어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임
일본 완성차업체의 경우 한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서플라이체인의 구축이 가능함
- 이데이시 타다시(出石 直) 일본방송협회 해설주사
건전한 여론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유럽의 유로뉴스와 같이, 동아시아방송 연합 등 동아시아간에 국경을 초월한 방송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 혁 KOTRA 일본지역본부장
일본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의를 보아왔는데 초기에는 무역투자쪽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인재교류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KOTRA에서는 한국의 청년인재를 일본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부문을 강화해 나갈 생각임
취업부문 외에도 한일 각각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상호인정해 주는 것이 인재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 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연구원
한국기업의 생산거점이 베트남에 많이 이전을 한 결과 베트남의 대일수출이 흑자를 기록한 것과 같이, 좀 더 글로벌한 시점을 가지고 한일관계와 한일 양국 기업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즈노 유지(水野 雄氏) 아사히리서치센터 상임상담역
우리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갔으면 함
- 박귀현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
무역협회에서도 KOTRA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한국 청년의 일본기업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
무역과 관련하여 일본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도쿄지부에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음

- 후루카와 타쿠(古川 拓) 가쿠슈인대학 정치학과 2학년
학생으로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와타나베 타카시(渡辺 隆史) 경제산업성 한국실장
한일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해 나가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라 생각하며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유정렬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
과거의 한일관계가 $1+1=2$ 라고 한다면, 이제는 $1+1=3$ 이 될 수 있는 상호보완
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함
- 오오노 쇼(大野 祥) 외무성 일한경제실장
동일본대지진 이후 5년이 흘렀으나 한국정부에서는 아직 일본 수산물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우려가 됨
이러한 한일 양국간의 생각의 갭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임

[첨부]

1.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1부.
2.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각 1부.
3.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조사 결과 1부.
4.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1부.
5.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사진자료) 1부. 끝.

첨부 1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3. 8 (화)	12:10~14:15	김포 → 하네다 (KE5707) ※ 개별 출국 수속
	12:40~14:40	김포 → 하네다 (OZ9102) ※ 개별 출국 수속
	15:30~16:30	하네다공항 → 호텔 (임대BUS) ※ 집합 후 단체 이동 ※투숙호텔 : Akasaka Excel Tokyu (03-5380-3906) Hotel Okura Tokyo (03-3582-0111)
	17:20~17:40	Akasaka Excel Tokyu → Hotel Okura Tokyo (임대BUS)
	18:00~20:00 (120)	환영 리셉션 ※장소 : Hotel Okura Tokyo 별관 12F Kensington Terrace
	20:20~20:40	Hotel Okura Tokyo → Akasaka Excel Tokyu (BUS)
3. 9 (수)	08:50~09:10	Akasaka Excel Tokyu → Hotel Okura (BUS)
	09:10~09:30	등록 / 접수 ※장소 : Hotel Okura Tokyo 별관 2F Orchard Room
	09:30~09:40 (10)	아소 유타카(麻生 泰)체어맨 인사 안중원 체어맨 인사
	09:40~10:10 (30)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郎) 코디네이터 인사 이수철 코디네이터 인사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인사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인사
	10:10~10:50 (40)	세션(Ⅰ) 테마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인사 : 미키 아츠유키(三木 篤行)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 SJC이사장 이시야마 히로츠구(石山 博嗣)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 前 SJC 이사장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제3국으로의 전개-」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네트워크 구축」
	10:50~11:30 (40)	자유 토론
	11:30~13:00 (90)	오찬 (일식도시락)
	13:00~13:40 (40)	세션(Ⅱ) 테마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구축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등 3명 「제3국에서의 한일 경제협력과 고령화사회 대응, 그리고 차세대 인재 · 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미래 신성장산업과 한일협력」
	13:40~14:20 (40)	자유 토론
	14:20~14:40 (20)	Coffee Break
	14:40~15:10 (30)	전체토론 & 정리
	15:10~15:20 (10)	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15:20~15:30 (10)	양국 체어맨 총괄, 양국 사무국 인사
	16:30~17:30	Hotel Okura → 하네다공항 (BUS)
	19:45~22:20	하네다 → 김포 (KE5712)
	22:00~22:30	하네다 → 김포 (OZ9127)

첨부 2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참가자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Dong-A One Group	顧 問	安 宗 原 AHN Chong-Won	Chairman
2	(株)MK KOREA	會 長	李 洙 喆 LEE Soo-Chul	Coordinator
3	(社)韓日經濟協會	常 勤 副 會 長	李 鐘 允 RHEE Chong-Yun	副 會 長
4	三星經濟研究所	專門委員	卜 得 圭 BOK Deuk-Kyu	1Session 發表
5	韓國經濟研究院	院 長	權 泰 信 KWON Tae-Shin	2Session 發表
6	慶北大學校	教 授	徐 正 解 SEO Joung-Hae	企業·團體 等
7	Kyosei國際特許情報(株)	代 表	朴 南 淑 PARK Nam-Sook	
8	大星電氣 JAPAN(株)	教 授	李 順 炯 LEE Sun-Hyeong	
9	大韓航空(株)	日本地域 本 部 長	金 正 洙 KIM Jeong-Soo	
10	東京理科大学	教 授	尹 仁 虎 YUN In-Ho	
11	産業研究院	副研究委員	崔 東 元 CHOI Dong-Won	
12	(株)Super Light Case	代 表	金 玉 卿 KIM Ok-Kyung	
13	□浜市立大口	教 授	鞠 重 鎬 KOOK Joong-Ho	
14	在日韓國科學技術者協會	顧 問	洪 政 國 HONG Jung-Kook	
15	GEO Nation(株)	代表理事	金 孝 眞 KIM Hyo-Jin	
16	GEO Nation(株)	課長代理	金 惠 珉 KIM Hye-Min	
17	(株)眞露	常 務	□ 弘 鳳 KWON Hong-Bong	
18	(株)眞露	部 長	田 昌 龍 JUN Chang-Yong	
19	KT Japan	TEAM長	金 秀 昶 KIM Soo-Chang	
20	KOTRA東京	日本地域 本 部 長	鄭 煥 CHUNG Hyuk	
21	KOTRA東京	副 館 長	大場 有博 OHBA Arihiro	
22	韓國貿易保險公社	支 社 長	宋 在 連 SONG Jae-Yeon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3	(社)韓國貿易協會 日本支部	支 部 長	朴 貴 顯 PARK Gui-Hyun	企業・團體 等
24	(社)韓國貿易協會 亞洲室	次 長	朴 剛 杓 PARK Kang-Pyo	
25	韓國輸出入銀行 東京事務所	所 長	金 板 洙 KIM Pan-Soo	
26	韓國輸出入銀行 東京事務所	副 部 長	朴 殷 洙 PARK Eun-Soo	
27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田 在 鏞 JUN Jae-Yong	
28	現代MOBIS 日本支店	支 店 長	諸 尙 口 JE Sang-Min	
29	Hikari情報(株)	會 長	奇 秉 泰 KEE Byung-Tae	
30	駐日韓國大使館	商 務 官	劉 正 悅 YU Jeong-Yeol	Observer
31	駐日韓國大使館	商務官補	文 準 善 MUN Jun-Seon	
32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	事務局長	趙 德 卯 CHO Duck-Myo	事務局
33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	部 長	金 正 鎬 KIM Jung-Ho	
34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	代 理	徐 光 賢 SUH Kwang-Hyun	
35	(株)TOUR2000	課 長	梁 仁 口 YANG In-Cheon	添乗員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본측 참가자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一社)日韓經濟協會 (株)麻生CEMENT	副 會 長 會 長	麻 生 泰 ASO Yutaka	Chairman
2	NRI社會情報SYSTEM(株)	代表理事 社 長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Coordinator
3	韓國三井物産(株) SEOUL JAPAN CLUB	社 長 理 事 長	三 木 篤 行 MIKI Atsuyuki	1Session
4	韓國三菱商事(株)	社 長	石 山 博 嗣 ISHIYAMA Hirotsugu	
5	TORAY(株)	顧 問	小 泉 愼 一 KOIZUMI Shinichi	
6	(株)旭 RESEARCH CENTER	常 任 相 談 役	水 野 雄 氏 MIZU Yuji	企業・團體 等
7	(株)HOTEL OKURA 東京	會 長	□ 原 當 博 KIYOHARA Masahiro	
8	(株)INTELLIGENCE KOREA	代 表	後 藤 康 □ GOTO Yasunori	
9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10	(公財)世界平和研究所	主 任 研 究 員	豐 田 裕 TOYOTA Hiroshi	
11	日本商工會議所 國際部	部 長	西 谷 和 雄 NISHITANI Kazuo	
12	(株)日本綜合研究所 調查部	上 席 研 究 員	向 山 英 彦 MUKOYAMA Hidehiko	
13	日本放送協會 解說委員室	解說主幹	出 石 直 IDEISHI Nao	
14	三菱商事(株)	常勤顧問	藤 山 知 彦 FUJIYAMA Tomohiko	
15	韓國三菱商事(株)	理 事 本 部 長	河 野 力 KAWANO Tsutomu	
16	韓國三菱商事(株)	社 員	白 俊 榮 BAEK Joon-Young	
17	(株)WORLD PLANNING	代 表	吉 岡 正 行 YOSHIOKA Masayuki	
18	外務省 ASIA大洋州局 北東ASIA課 日韓經濟室	室 長	大 野 祥 OONO Hiroshi	
19	外務省 ASIA大洋州局 北東ASIA課 日韓經濟室	職 員	小 林 篤 KOBAYASHI Atsushi	
20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國室	室 長	渡 □ 隆 史 WATANABE Takashi	
21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國室長 補 佐	中 山 正 幸 NAKAYAMA Masayuki	
22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國室	職 員	伊 藤 彩 菜 ITO Ayana	
23	(株)日刊工業新聞社 經濟部	記 者	大 城 麻木乃 OSHIRO Makino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4	(一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2Session
25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事務局
26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千吉良 泰三 CHIGIRA Taizo	
27	(一社)日韓産業技術協力財	常務理事	木 村 □一□ KIMURA Shinichiro	
28	(一社)日韓産業技術協力財	理 事	今 井 哲 □ IMAI Tetsuro	
29	(一社)日韓産業技術協力財	事 業 第三部長	初□川 茂 HATSUSEGAWA Shigeru	
30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事 業 開拓部長	須 藤 俊 SUDO Shun	
31	(一社)日韓經濟協會	部 長	伊 藤 美千代 ITO Michiyo	
32	(一社)日韓經濟協會	課長代理	金 侑 貞 KIM Yu-Jung	
33	(一社)日韓産業技術協力財	課 長	杉 原 景 SUGIHARA Kei	
34	(一社)日韓産業技術協力財	社 員	金 熙 姫 KIM Hee-Jung	
35	[韓日學生未來會議] 立教大學 經濟學科 2年		宋 容 □ SONG Young-Chan	Observer
36	[韓日學生未來會議] 早□田大學 政治學科 2年		浴 永 健 弘 EKINAGA Takehiro	
37	[韓日學生未來會議] 學習院大學 政治學科 2年		古 川 拓 HURUKAWA Taku	
38	[韓日學生未來會議] 慶應義塾女子高等學校 3年		藤 田 ななこ FUJITA Nana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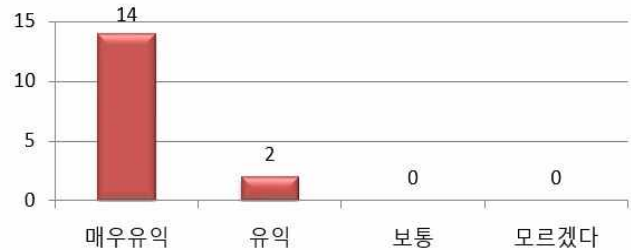
첨부 3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회의 참가자 ◇ 응답수 : 16명

문1) 각 주제발표 평가(파랑색 : 한국측 발표, 빨강색 : 일본측 발표)

■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제3국으로의 전개~ (이시야마 히로즈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1 매우유익	14
2 유익	2
3 보통	0
4 모르겠다	0



■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1 매우유익	14
2 유익	2
3 보통	0
4 모르겠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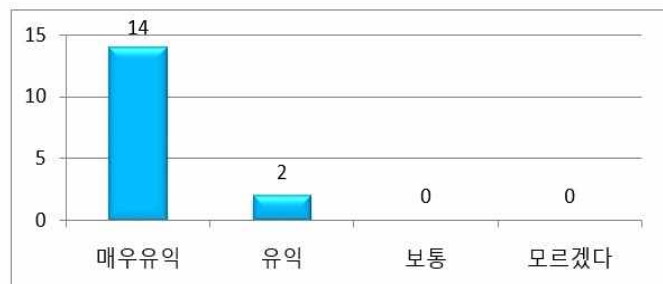
■ 제3국에서의 한일경제협력과 고령화사회 대응, 그리고 차세대 인재, 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 매우유익	10
2 유익	2
3 보통	1
4 모르겠다	1



■ 미래 신성장산업과 한일협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 매우유익	14
2 유익	2
3 보통	0
4 모르겠다	0



문2) 향후 일본과 기대되는 협력관계

■ 한일FTA 체결

1 상	8
2 중	8
3 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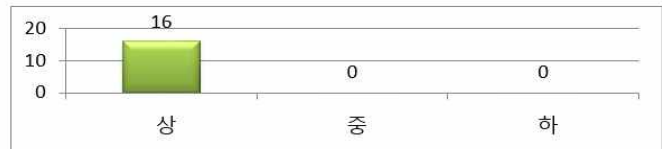
■ 환율안정 노력

1 상	4
2 중	12
3 하	0



■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1 상	16
2 중	0
3 하	0



■ 고령화문제에 따른 상호협력

1 상	8
2 중	8
3 하	0



■ 한국의 TPP참가에 대한 일본측 지지

1 상	6
2 중	10
3 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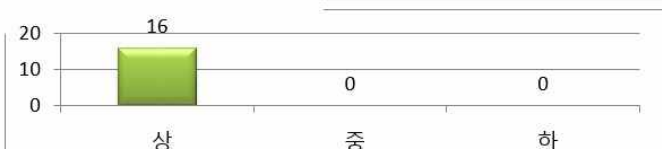
■ 한일간 서비스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1 상	8
2 중	8
3 하	0



■ 미래 유망산업 표준화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1 상	16
2 중	0
3 하	0



■ 한일간 벤처 플랫폼 구축

1 상	8
2 중	8
3 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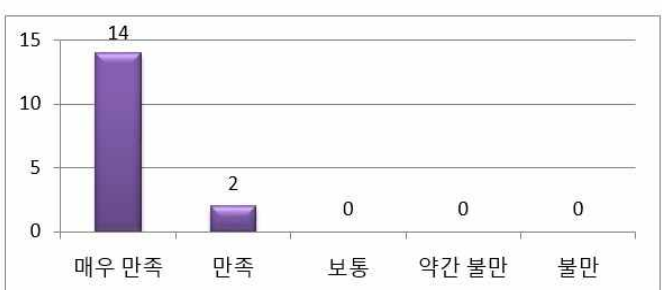
■ 관광,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일협력

1 상	10
2 중	6
3 하	0



문3) 회의 만족도

1 매우 만족	14
2 만족	2
3 보통	0
4 약간 불만	0
5 불만	0



■ 기타 의견

- 기업측의 실무적 의견청취 및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여 좋았음
- 새로운 의제가 많이 제안되었으나, 향후 경제협력의 새로운 축(Framework)을 제시하는 형태의 회의가 되었으면 함
- 평상시 생각치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좋았음
- 복득규 전문연구위원 발표내용 관련 : 유럽의 FP나 유레카모델을 참고하여 구체방안이 경제인회의 시 제안되었으면 함



(지면, 3/10(목) A13면 3단 □ 록)

“의료·바이오 협력으로 亞 경제통합 이끌자”

韓·日, 신산업무역회의

“미래 50년은 한일이 아시아 경제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9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 17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 참석한 한일 재계인사들은 지난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넘어 미래 50년을 내다본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종원 한국 측 의장(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일이 새로운 경제 협력 원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 경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야마 히로쓰쿠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히고, 역내 인프라 구축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 통합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 무역협회 부회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사진제공=무역협회)

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망한 한일 협력 분야로는 의료, 요양보호, 바이오, 환경, 우주개발 분야를 제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래산업, 인프라, 관광, 통일, 자원,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제표준, 연구개발(R&D)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협력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나소닉, 미즈호은행 등 한일 재계 인사들은 제3국 공동 진출, 요양보호사업, R&D 네트워크 구축 등 성공 사례를 통해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재계인사 70여 명이 참가했다. 논의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공동성명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도쿄/황형규 특파원

... ..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도쿄서 개최…"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안종원 비상근 부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외교적 애로를 해결하는 실천적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한일우호·경제협력의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동반 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모았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래 한일 협업분야로 의료와 요양보호, 바이오 등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 등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안종원 부회장은 "중국 경제 침체가 야기한 세계경제 둔화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 오는 5월 16~1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 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amlee@yna.co.kr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9일 한·일 양국 경제전문가들이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일본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의장인 안종원 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과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시야마 히로츠크(石山博嗣)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역내 인프라 구축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망한 협업분야로 의료, 요양보호, 바이오, 환경, 우주개발 분야 등을 제시하고 북극해 해저자원을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과 지적재산권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다.

pjk76@newsis.com

무협, 한일 경제인 日 도쿄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역협회는 9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7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이 한국측 의장으로 참석했고,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모두 70여명 참가했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협력 과제 및 애로사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한·일 우호 경제협력의 원년’이라는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시야마 히로츠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내 인프라 구축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유망한 한일 협업 분야로 의료, 요양보호, 바이오, 환경, 우주개발 분야 등을 제시하고 북극해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측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 지적 재산권 협력 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무협, 도쿄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열어



한국무역협회가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17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제17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에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협력 과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천적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한일우호·경제협력의 원년’이라는 틀 아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함께 구축하자는 데 목표를 뒀다.

이날 회의에는 안종원 비상근부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이시야마 히로츠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이날 “역내 인프라 구축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인, 한일 양국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의 유망한 한일 협업분야로 의료·요양보호·바이오·환경·우주개발 분야 등을 제시하고 북극해 해저자원을 공동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은 고령화·저성장·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지적재산권 협력 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실질적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해당 논의를) 오는 5월 16~18일 일본에서 개최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uri0527@asiatoday.co.kr

아주경제

무협,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새 50년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9일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종원 한국측 의장(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 동아원 고문), 아소 유타카 일본측 의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규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사장)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에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협력 과제 및 애로사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이라는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시야마 히로츠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내 인프라 구축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유망한 한·일 협업분야로 의료, 요양보호, 바이오, 환경, 우주개발 분야 등을 제시하고 북극해 해저자원을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 지적재산권 협력 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실질적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오는 5월 16~1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ajunews.com

韓日 경제 전문가들, 양국 협력증진 모색..中추격 극복 등 논의

9일 도쿄서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새로운 50년을 향한 우호와 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70여명의 한국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9일 일본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의장으로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동아원 (008040)(1,815원 5 -0.27%) 고문)이, 일본측 의장으로는 아소 유타카(麻生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큐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사장)이 참석했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에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협력과제 및 애로사항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회의 성격을 띄고있다.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한일우호·경제협력의 원년'이라는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시야마 히로츠크(石山博嗣)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한일 양국 이 경제연대를 제3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내 인프라 구축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유망한 한일 협업분야로 의료, 영양보호, 바이오, 환경, 우주개발 분야 등을 제시하고 북극해 해저자원을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 지적재산권 협력 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종원 부회장은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실질적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오는 5월 16~1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안종원(왼쪽) 무역협회 부회장(동아원 고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규슈경제연합회 회장, 아소시멘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첨부 5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전경



<Reception 전경>



<Reception에서 인사말하는 안종원 체어맨>



<본 회의 전경 ①>



<본 회의 전경 ②>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다카다 일본측 코디네이터>



<한국측 주최기관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일본측 주최기관
고레나가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제1세션 : 이시야마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제1세션 :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2세션 : 고레나가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등>



<제2세션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